

보·도·자·료



한국통신

초고속 선도시험망 공동이용센터 확대구축

- ◎ 한국통신(사장 이 준)은 2차 선도시험망 공동이용센터 구축을 위한 협약을 정보통신부와 체결한데 이어 삼성전자(주), 성미전자(주), 현대전자산업(주)등 3개 민간업체와 '96년 10월에 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이용센터 구축에 들어갔다.
- ◎ 2차 공동이용센터는 서울, 부산, 대구, 광주, 춘천 등 5개 도시에 추가로 6개소가 확대 구축되며, 구축장소는 삼성전자(주)가 경북대, 연세대, 성미전자(주)가 강원대, 부산대, 현대전자산업(주)가 송실대, 전남대로 '96년 말까지 구축 완료할 예정이다.
- ◎ 선도시험망 공동이용센터구축은 초고속정보통신기반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국가전략사업으로 정부의 위임하에 한국통신이 전담하고 있으며, 공동이용센터 구축업체와 대학교는 공보를 통해 선정하고 있다.
- ◎ 공동이용센터란 가입자 광케이블망 구성이 어렵거나 경제적 부담으로 고가의 초고속 관련장비를 마련할 수 없는 초고속정보통신 응용서비스 개발자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개발

시험센터로서 1차 구축업체로는 LG전자(주)와 한국 IBM(주)을 선정하였으며, LG전자(주)는 서울대와 충남대에 한국IBM(주)는 한국과학기술원 대전분원과 서울분원에 공동이용센터 4개소를 구축, '96. 2월부터 운용중에 있다.

- ◎ 공동 이용 센터 내에는 ATM LAN 장비1대, 서버 1대, 워크스테이션 5대, 멀티미디어 PC 7대 등 최신의 장비들이 설치되어 10명의 개발자가 동시에 작업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축되었으며, 한국 Oracle(주), 한국컴퓨터통신(주), LG소프트웨어(주), 한국사이베이스(주), 인포믹스 다우코리아(주), 마이크로소프트(주) 6개사에서도 초고속관련 DBMS와 Software를 무상으로

지원하여 완벽한 시험, 개발환경을 갖추고 있다.

- ◎ 이용은 초고속 정보통신기반구축 관련기술 개발자 등 다수의 개발자가 이용하고 있으며, 현재까지 이용실적으로는 "초고속망을 이용한 3차원 원격의료 영상시스템의 개발"등 초고속 응용서비스개발과제 344건을 개발, 시험하였으며, 600여회를 이용하였다.
- ◎ '96년말에 6개 센터구축이 완료되면 총 10개 센터로서 지방의 이용자들이 공동이용센터를 이용하기 위해 서울과 대전까지와 야하는 불편함을 해소시켜 주게 됨은 물론 지역정보화 지원기능을 촉진하고 지방이용자의 이용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.

■ 공동이용센터 문의처

| 설 치 장 소 | 전 화 번 호 | F A X | 비 고 |
|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|
| 서울대학교 | (02)876-7170/1 | (02)876-7171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전화, 팩스, E-Mail, 우편 등으로 신청 ● 이용시간 09:00 - 18:00 (토요일, 13:00) (일요일, 공휴일 휴관) |
| 충남대학교 | (042)822-3683 | (042)822-3684 | |
| KAIST본원 | (042)869-4962/3 | (042)869-4964 | |
| KAIST분원 | (02)968-2259 | (02)968-2258 | |
| 한국통신 | (02)750-5725/6 | (02)739-4672 | |